마이네임 안보현 "'이태원 클라쓰' 아닌 베테랑 형사 칭찬 뿌듯"

'마수대 에이스 형사'로 액션 연기 소화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다"

"전작 '이태원 클라쓰'에서 사고뭉치 악역을 연기했던 만큼, 형사 역할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안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베테랑 형사처럼 나왔다고 해주셔서 뿌듯해요."

넷플릭스 시리즈 '마이 네임'에 출연한 안보현은 가장 기억에 남는 시청자 반응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25일 진행된 화상 인터뷰에서 악역과 선역을 오가는 필모그래피와 관련해 "아직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많다"고 밝게 웃었다.

그는 "다른 역할을 하는 데 호기심과 재미를 느끼면서 연기에 임하는 것 같다"며 "'이태원 클라쓰'도 나쁘다고 생각하면서 연기를 하지는 않았다. 눈빛이 매서워서 악역이 잘 어울린다고 해주시는데 작품마다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바랐다.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찾기 위해 언더커버로 경찰에 잠입하게 된 지우(한소희)의 파트너 필도 역을 맡은 안보현은 강단 있는 원칙주의자이자 마약수사대 에이스 형사로 한소희와 마수대 선후배 케미를 선보였다.

불의를 보면 참지 않는 필도 역할과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하기도. 그는 "형사로서 캐릭터 성격이 잘 보이는 인물이었다. 항상 작품을 할 때마다 캐릭터에 이입하다 보니 공감대를 찾고, 교집합을 찾는 데 필도는 정말 많이 비슷한 거 같다. 연기가 편했다기보다 이입하기 편했다. 작품이지만 정의롭고 선한 역할을 맡아 성취감과 뿌듯함을 느꼈다"고 돌이켰다.

복싱 선수 출신인 안보현은 탄탄한 피지컬(신체조건)과 어우러진 완성도 높은 액션으로 호평받았다. 안보현 등 주역들은 촬영 두, 세 달 전부터 액션스쿨에 나가 연습을 거듭했다. 오랜 시간 서로 합을 맞춘 이들은 맨손 액션은 기본, 칼, 총, 경찰들이 사용하는 삼단봉 액션까지 무기를 가리지 않는 다양한 액션을 소화했다.

그는 액션 연기에 대해 "복싱과 많이 다르긴 하지만, 몸을 쓰는 건 편했다. 반사신경이 중요한 운동을 했던 경험이 잘 쌓여서 액션 연기에 도움이 된 것 같다"면서도 "액션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합을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했다.

한소희와의 후반부 베드신과 관련해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이 나뉘더라. 굉장히 다양한 시각으로 보시는 것 같다"고 운을 뗐다.

그는 "필도에게도 아픔이 있고 지우에게도 아픔이 있다 보니, 같은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장면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며 "필도와 지우의 감정을 보여줄 수 있는, 괴물이 되어가던 지우가 인간이 되는, 자극제가 돼 복수하게 되는 장면이라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돌이켰다.

이어 "김진민 감독님, 김바다 작가님, 한소희와 많이 상의했기 때문에 부담감보다는 필도로서 감정이입하기 좋았다"고 얘기했다.

한소희를 향해서는 "액션스쿨에서 처음 한소희를 봤다. 대부분 미팅 자리에서 만나는데, 한소희는 TV에서만 보다가 액션스쿨에서 땀 흘리며 인사했다. 열정이 넘친다는 느낌을 정말 많이 받았다"며 "한소희가 액션이 많아 힘들 수 있는데, 내색하지 않고 소화하더라. 그래서 액션 부분이 잘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추어올렸다.

2016년 영화 '히야'로 데뷔한 안보현은 드라마, 영화의 단역부터 시작해 한걸음씩 연기 내공을 다졌다.

tvN '그녀의 사생활'에서 첫 주연을 맡았고 지난해 JTBC '이태원 클라쓰'에서 장근원 역으로 강렬한 인상을 안겼다.

현재 티빙 오리지널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에서 열연 중인 그는 "안보현이 아닌 극 중 캐릭터로 기억되고 싶다"며 "앞으로 선보일 작품도 기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김선호, 낙태 종용? 합의…미역국 재료 사러 다녀"

디스패치 '왜곡된 12가지 진실' 보도 파문

'사생활 의혹'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 김선호 사태가 새 국면에 들어섰다.

26일 연예전문매체 '디스패치'는 최근 불거진 김선호의 사생활 논란과 관련해 '왜곡된 12가지 진실'이 있다며 김선호와 A씨가 만남과 이별을 겪고 폭로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제보와 그들의 지인 주장을 통해 시간순으로 구성해 보도했다.

내용에 따르면 김선호와 A씨는 2019년 연말 지인 모임에서 우연히 만나 지난해 3월 본격적인 교제를 시작했다. A씨는 처음에 김선호에게 이혼녀라는 사실을 숨긴 듯 보였고 이후 이혼녀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두 사람은 A씨의 거짓말로 인해 지난해 7월7일 이별했지만 다음날인 A씨가 김선호에게 사과하고 둘은 다시 교제를 이어갔다.

둘은 같은 달 24일 임신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김선호의 지인 B씨는 "형(김선호)은 처음에는 잘된 일이라고 축하해 줬다. 사실 겁이 났던 것도 같아 고민했고, 서로 안타깝지만 보내 주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B씨는 A씨가 수술에 동행했다고 밝힌 김선호의 후배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사흘 뒤인 27일 낙태가 이뤄졌지만 이 과정에서 A씨가 이를 번복하고 둘은 다시 합의했다. B씨에 따르면 A씨가 낙태 수술을 하기 위해 찾았던 병원에서 갑자기 말을 바꿔 수술 시간이 길어졌고, 그동안 김선호는 미역국 재료를 사러 다녔다고 했다. 그는 "김선호가 그래도 사랑했던 사람이라 (A씨를) 이해하려고 애썼고,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사생활로 싸우고 싶지 않다고 했다"며 "그래서 대응 대신 사과를 했다고 한다. 그냥 남들과 똑같은, 보통 연애를 했다"고 밝혔다.

낙태 이후에도 둘은 교제를 계속했다.

김선호는 자신의 부모에게 A씨를 소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A씨는 김선호 몰래 다른 남자들을 만났고 결국 이들은 지난 5월 결별했다.

이들의 지인들에 따르면 김선호가 여자친구에게 금전적으로 박하게 대했다는 말도 거짓이다. A씨 지인은 "(A씨의) 사치와 씀씀이가 김선호를 힘들게 했다. 크리스마스에 700만원 짜리 명품백을 샀다. 개인카드로 끊고 김선호에게 입금 받았다. A씨가 계산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대부분 김선호가 냈다. 누가 명품에 집착하는지 주변 사람들은 다 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세 배우 K씨와 교제를 했고 지난해 7월 임신했지만 K씨가 작품 등을 핑계로 낙태를 권유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K씨가 작품이 끝난 뒤 결혼을 약속했지만 낙태 이후 자신의 흔적을 지워버렸다고 폭로해 파장을 일으켰다.

K씨는 김선호로 밝혀졌고 김선호는 지난 20일 공개 사과했다. 이후 김선호는 광고계에서 퇴출됐고 예정된 영화들에서 하차했다.

이후 A씨는 "그분에게 사과 받았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더이상 사실과 다른 내용이 알려지거나 저나 그분의 이야기가 확대 재생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2차 가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랜파' 이순재→임하룡 출격…다음달 6일 첫 방송

'평균나이 79세'

배우 이순재·박근형·백일섭·임하룡이 '그랜파'로 뭉쳤다.

26일 MBN 골프 예능 '그랜파'는 공식 포스터를 공개하며 첫 방송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개된 포스터 속 이순재, 박근형, 백일섭, 임하룡은 화창한 하늘 아래 필드 위에 나란히 모여서 깜찍한 손하트 포즈를 취했다. 여기에 '평균나이 79세', '국민할배들의 명랑 골프 유랑기'라는 문구가 더해져 호기심을 모았다.'인생필드 평생동반 그랜파(GRAND PAR)'는 지난 7~8월 4부작 파일럿으로 론칭했다.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평균 시청률 3%를 기록할 만큼 시청자들의 뜨거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시즌부터는 정규물로 편성돼 한층 더 업그레이 된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제작진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이자, 골프에 진심인 베테랑 골퍼 4인방이 시청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다시 뭉쳤다. 라운딩과 여행에 최적인 가을에 시작한 만큼,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준비돼 있으니 기대하셔도 좋다"고 전했다.

한편, '그랜파'는 11월 6일 오후 9시 30분 첫 방송된다.

배우 윤균상, 데뷔 첫 단독 MC 도전…'방과후 설렘'

다음달 28일 첫방…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윤균상이 MBC '방과후 설렘'의 MC로 발탁됐다.

26일 '방과후 설렘'측은 글로벌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에 배우 윤균상이 MC를 맡는다"고 밝히며 "윤균상이 배우로서 다양한 작품을 통해 얻은 경험이 MC로서 도움이 될 것 이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데뷔 후 첫 단독 MC로 나서는 윤균상은 그동안 다양한 드라마 작품과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약 중이다. 그는 드라마 '피노키오', '육룡이 나르샤' 등을 통해 캐릭터 소화력을 입증하는가 하면, '삼시세끼'에서는 예능감도 드러냈다.

한편 '방과후 설렘'은 옥주현에 이어 권유리, 댄서 아이키, (여자)아이들 소연까지 프로듀서 라인업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은 바 있다.

글로벌 걸그룹 발굴 프로그램 '방과후 설렘'은 11월 28일 MBC에서 첫 방송된다.

'너의 밤', 정인선X밴드 루나 5인방 캐릭터 공개

다음달 7일 첫 방송

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가 캐릭터들의 각양각색의 매력이 담긴 스틸 컷을 공개하며 팬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다.

26일 SBS 일요드라마 '너의 밤이 되어줄게' 측은 배우 정인선과 밴드 루나(LUNA) 5인방의 캐릭터 스틸 컷을 공개했다.

'너의 밤이 되어줄게'는 몽유병을 앓고 있는 월드스타 아이돌과 비밀리에 이를 치료해야 하는 신분위장 입주 주치의의 달콤 살벌한, 멘탈 치유 로맨스를 그린 작품이다.

이날 공개된 캐릭터 스틸 컷에는 정인선을 비롯해 이준영, 장동주, 김종현(뉴이스트), 윤지성, 김동현(AB6IX)의 모습이 담겼다. 먼저 정인선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표정과 함께 밝고 활력 가득한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반면 이준영은 고민이 있는 듯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기타를 연주하고 있다. 이처럼 정인선과 이준영이 서로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듯한 인윤주, 윤태인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낼지 기대된다.

이밖에도 장동주는 아늑해 보이는 책방에 앉아 있고, 김종현은 턱을 괴고 앉아 누군가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보여주고 있다. 더불어 드럼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는 윤지성과 어항을 앞에 두고 고민에 빠져있는 듯한 김동현의 분위기 있는 모습이 담겼다.

이처럼 각기 다른 개성을 지닌 인물들이 한 집에 살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낼지 본 방송을 향한 팬들의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한편, '너의 밤이 되어줄게'는 11월 7일 오후 11시 5분 첫 방송 예정이다.

신용재, 정준일 '고백' 리메이크 음원 차트 점령

릴레이 프로젝트

신용재의 '고백'이 음원 차트를 점령했다.

25일 카카오 엔터는 가수 신용재가 정준일의 '고백'을 리메이크한 음원이 지난 24일 공개된 후 각종 음원차트에서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고백 프로젝트'는 '고백'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다양한 명곡들을 아티스트들이 자신 만의 색깔을 담아 재해석하는 릴레이 리메이크 프로젝트다.

지난 7월 장범준이 박혜경의 '고백'을, 십센치는 델리스파이스의 '고백', 멜로망스가 뜨거운 감자의 '고백'을 불렀다.

어반자카파는 장나라의 '고백'을 리메이크해, 이들의 곡들은 음원 차트를 휩쓸었다.

신용재는 "'고백' 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면 늘 설레고 풋풋한 감정이 먼저 떠오르곤 했는데 이 곡을 리메이크하면서 새삼 '고백'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며 "곡 속에 꾹 참고 숨겨왔던 그리운 마음을 표현해 보려고 애썼던 것 같다. 너무 즐거운 작업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신용재의 리메이크 음원과 함께 '고백' 뮤직비디오도 동시에 공개됐다.

한 연인의 안타까운 이야기가 담긴 뮤직비디오에서 배우 배인혁과 이주빈이 전연인으로 출연한다.